

출판통계의 가치

연말이 다가오면 언제나 출판계가 한해동안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의 하나로 출판실적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출판물이 출판인의 철학과 이념의 구체적인 표상이라면, 그러한 출판활동의 내용을 수치로 정리한 출판통계는 출판의 수준과 추세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도서의 발행종목에 바탕을 둔 수적 평가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 나라의 생활속에서 책이 차지하는 위치와 출판 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비교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출판통계는 납본되는 도서목록을 통해 초판과 중판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집계하고 있다.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납본제도를 이용해 출판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만이 출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실시해서 출판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국가차원에서 출판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서의 심진분류법에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가감하여 주제를 분류하고 있는 집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책의 혁명」의 저자인 에스카르피 교수이다. 그는 기능서와 문학서로 구분함으로써 책의 효용성을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카르피 교수에 의하면, 사회과학·언어학·순수과학·기술과학은 전적으로 기능서이고, 총류·철학·종교·예술·역사·지리는 부분적으로 기능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화가 되고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기능서 출판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3만 5천여종, 1억 4천만부 발행

결론부터 내리자면 출판계의 87년은, 전환기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진통이 여전히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 일부는 새로운 질서를 정리해 가는 진통과 모색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출판계는 80년대를 전환기로 규정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학원가의 계속되는 소요사태와 정국의 소용돌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열풍, 수해 등이 출판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판량의 성장세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고, 판매량은 오히려 감퇴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87년 11월말 현재 出協이 집계한 출판통계에 의하면 올해의 발행종수는 모두 35,606종으로 같은 기간보다 4.4%가 증가했고, 발행부수는 1억4천454만 8,114부로 8.6%가 증가했으나 이는 86년도에 85년도에 비해 종수에서 11.6%, 부수에서 31.1% 신장되었던 것에 비하면 그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87년의 이러한 성장률은 80년 이후의 평균

성장률(종수 11.2%, 부수 12.4%)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연간 발행종수가 1만종대, 2만종대, 3만종대를 각각 돌파한 성장추세와 금년 상반기의 실적으로 미루어 87년은 4만종 2억부 발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었었다.

그런데 하반기의 출판활동이 유난히 저조했다. 특히 新刊(초판)의 발행량이 저조했다. 重版의 경우는 종수가 5.1%, 부수는 15.5%씩 각각 신장된 반면, 초판은 3.9%(종수), 8.6%(부수)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초판을 기준으로 볼 때 87년의 발행종수가 증가한 분야는 사회과학(412종 증가), 기술과학(308종), 어학(270종), 순수과학(114종)이다. 반면, 아동(281종 감소), 역사(167종) 등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학습참고서(40종 감소), 문학(37종 감소)도 86년의 실적을 밑돌고 있다.

순수과학서가 86년에 이어 87년에만도 32%나 늘어난 것에 비해, 문학서는 연 이태 계속해서 감소 경향을 보였다. 시집의 출판이 활발한 대신 소설부문은 상대적인 침체를 보였기 때문이다. 시집이 문학서 출판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월에 초판이 발행된 「홀로서기」는 50만부가, 「접시꽃 당신」은 86년 12월 첫 판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30만부라는 경이적인 판매부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시집 외에도 많은 시집들이 최근 몇 년간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을 장악함으로써 시집 출판은 붐을 이루어 11월말 현재 419종의 시집이 발행되었다.

소설은 신작보다 이미 나왔던 작품의 리바이벌이 많았다는 느낌이다. 새로운 독자층이 늘고 출판활동도 왕성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왕성한 독서의욕을 채워줄 좋은 작품은 계속

'정치열풍'으로 成長勢 둔화

통계로 본 1987년의 출판동향

李斗暎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해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습참고서가 전체의 48% 차지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1. 치열한 작가정신에 의해 작가가 개작하는 경우 2. 대표적인 작가·작고 문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재출판하는 경우 3. 절판된지 오랜 지난 날의 화제작들을 요사이 젊은 독자들이 쉽게 구해 읽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시 출판하는 경우 4. 진전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 5. 인기있는 작품만을 기간도서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새로운 작품처럼 출판하는 형태 등으로 그 경향을 정리할 수 있다.

중당 평균 발행부수는 출판시장의 규모와 독서인구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계속 신장추세에 있는 중당 평균 발행부수는 86년의 3,905부에서 4,059부로 늘어나 처음으로 4천부선을 깼다. 그러나 학습참고서의 평균 발행부수가 1만7천부에 육박하고 전체 발행부수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평균 발행부수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하겠다.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평균 발행부수는 2,375부로 그나마 아동·중

교·어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그것은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가격도 4,401원에서 4,542원으로 올랐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출판의 영세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출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출판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출판의 경향은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투영이다. 교육도서의 이상비대 경향은 교육제도·교육풍토를 반영한 것이고, 과학기술서의 지속적인 성장은 확대·발전하는 경제실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사회과학서도 이 시대의 정치상황의 산물이다.

'공급 과잉 현상' 우려도

출판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서점에 대한 공급부수는 86년보다 2%나 감소, 판매가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량이 폭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출판량의 증가는 당연한 추세이기도 하지만, 단행본이나 전문서는 신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매 직후 승부가 끝난다. 발매 후 30일간의 매상과 그 후의 연간 매상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간 우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판의 속성이 출판량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정체되지 아니한 기획과 뇌동형의 중복출판에만 재미를 붙여 출판종목을 늘리고 출판사마다 비슷한 도서목록을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계속 확대된다면 출판문화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87년 11월말 현재 2,746개사의 출판사가 있다. 신규등록이 재개된 10월 19일 이후에만도 161개사가 늘었다. 새로 탄생하는 출판사들이 얼마나 참신한 발상으로 새해 출판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지는 미지수이다.

출판통계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87년에 나온 20,800여종의 신간도서들이 얼마만큼 지적·예술적 창조의 새로운 성과를 담은 진정 의미있는 새책들인지는 독자들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일이다. 도서선택에 대한 독자들의 안목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1987년 출판통계

분야	구분		발행종수		전년비 성장률	발행부수
	초판	중판	계	전년비		
총류	398	252	650	17.3	1,167,615	
철학	579	614	1,193	1.2	1,922,695	
종교	1,428	1,487	2,915	12.1	9,649,450	
사회과학	3,290	1,423	4,713	9.6	6,883,225	
순수과학	404	232	636	31.9	1,445,309	
기술과학	1,678	979	2,657	12.6	3,506,112	
예술	1,045	770	1,815	△ 0.3	3,989,580	
어학	1,103	801	1,904	16.5	5,449,106	
문학	3,630	2,691	6,321	△ 1.7	13,468,870	
역사	782	330	1,112	△ 18.8	1,550,192	
학습참고서	3,580	535	4,115	0.0	69,755,855	
아동	2,909	4,666	7,575	5.9	25,760,105	
계	20,826	14,780	35,606	4.4%	144,548,114	

주: 1) 문화공보부 납본에 의한 집계임. 2) 만화·팝물렛은 제외됨(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3) △표는 마이너스 성장률임.